웅장했던 도량 텅 빈 공간으로 '무상' 설하다

⑫ 회암사(상), 번성이 아픔이 된 도량



회암사지발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발굴이 완료된 지역의 석축들이 과거 찬란했던 도량을 가늠케 한다.

나옹 스님 의해 '동방에서 첫째'의 도량으로 중창

고려말 조선초 왕족 귀의로 번성… 문정왕후 사후 유생들 핍박으로 쇄락

홀로 사지 지키는 부도 조각 화려해도 균형미 떨어져

불같이 타오르던 꽃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수줍은 입술을 뾰족이 내민 잎들이 한창 기세 좋게 푸른 하늘을 찔러대며 교향곡을 연주하는 봄날입니다. 이런 날 회암사를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너른 공간에 펼쳐진 폐사의 잔해가 역사의 비애를 말해주는 곳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소생(蘇生)의 시간에 폐허의 공간을 둘러보는 것이 교만한 인간 세상의 단편을 관조하는 기회도 될 것이란 생각에 차를 달려 천보산의 품으로 향합니다.

의정부를 벗어나면서 하늘에 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두터운 먹장구름입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웬 구름? 쿠르릉 쾅 하고 천둥도 칩니다. 회암사지 근방에 도착하니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시답지 않은 놈이 성역을 찾아가는 것이 못마땅해 이렇게 겁을 주는가 하는 생각에 오금이 저립니다.

회암사지에 도착해 전망대에서 발굴현장을 내려다봅니다. 3만3000여㎡(1만여 평)에 이르는 너른 절터를 조각 맞추기 하듯 발굴한 현장이 경외롭습니다. 오늘도 카메라를 메고 동행한 이승현 시인은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다니' 하는 표정이지만 말이 없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 줍니다. 땅을 파헤쳐 옛 절터를 가늠하고 유물을 들추어 가람의 배치를 읽어내는 발굴현장은 먹장구름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수 백 년 묵혀 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푸릇푸릇 돋아난 잡초들도 조심조심 줄기를 밀어 올리는데 속살 드러낸 절터를 망연히 바라보는 나그네의 눈길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기어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굵은 빗줄기가 한 바탕 지나갑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한 바탕 세차게 뿌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부챗살처럼 비칩니다. 갑작스런 소나기는 사지와 부도 그리고 탑비들을 찬찬히 잘 보라고 하늘이 청소해준 것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국가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목은 이색은 '회암사 주조기'에서 회암사를 동방에서 첫째가는 도량이라 소개했습니다. 회암사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동안 대륙과 반도의 왕에서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던 큰스님들이 깊은 인연을 지었고 왕실이 원찰로 삼았던 도량이었습니다. 비록 사지로 남아 아직 발굴 작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회암사는 인도의 승려 지공화상이 건립했다고 전하지만 그가 고려에 오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절입니다. 지공은 인도의 나란난타 대학과 같은 구조의 대규모 절로 회암사를 지으려는 원력을 세웠고 그의 뜻은 제자인 나옹 선사가 이루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나옹 선사는 왕조의 막강한 후원에 힘입어 회암사 중창불사를 완성하지만 그 이름이 너무 높아 '백성들의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탄원까지 왕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로인해 나옹 선사는 불사회향을 앞두고 밀양으로 향하다가 중도에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합니다. 이후 무학 대사가 조선 태조의 후원으로 절의 명맥을 잇고 태조와 효령대군 정희왕후 문정왕후로 이어지는 왕실의 귀의를 바탕으로 '왕실사찰'의 큰 격을 유지합니다.

왕실사찰의 면모는 지금 발굴현장에서도 생생히 보이는데 궁중에서나 쓰는 태극문양이 돌계단의 귀꽃으로 쓰였습니다. 거대한 기름틀과 소맷돌(경기유형문화재 제1호) 사방6자의 안반, 기름틀 등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묻혔다가 세상 빛을 보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귀의를 받고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허응당 보우 대사가 다소 쇄락한 회암사를 다시 중창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번성이 화근이었을까요? 숭유억불의 국시를 버티기에 왕실의 힘도 모자람이 있었나 봅니다. 1565년(명종20) 중창불사를 마치며 대설무차대회를 열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문정왕후가 이승의 인연을 마치는 바람에 보우 선사마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피살당합니다.

그 뒤 내리막길을 치달은 회암사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종지부를 찍게 됐을 것이고 3000명의 수행자들이 구도의 향화를 태웠다는 큰 도량은 역사의 눈길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학계는 회암사가 문정왕후의 사망 이후 유생들에 의해 고의적인 방화로 소실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세도 무상합니다. 그 권세의 귀의를 받아 번창했던 도량도 무상합니다. 천지만물이 무상한데 큰절이라고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주괴멸의 사이클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유위의 이치입니다. 다만, 더 지켜질 수 있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석양무렵의 시장기처럼 속을 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암사지는 그 웅장했을 몸을 버리고 텅 빈 공간을 통해 일체의 무상을 법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 없는 법문을 들으며 사지를 더듬어 봅니다.

지금도 전국의 사찰에서 숭앙해 마지않는 삼화상(三和尙), 지공(指空) 나옹(懶翁 1320~1376) 무학(無學 1327~1405) 대사의 부도와 탑비는 회암사지 위쪽에 위치한 회암사 오른쪽 능선에 모셔져 있습니다. 회암사지를 거쳐 회암사에 이르고 회암사에서 오른쪽 언덕에 삼화상의 부도와 탑비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나옹 선사의 탑비는 왼쪽 능선에 우뚝 서 있습니다.

비가 그친 폐사지의 갓길을 따라 구석으로 갑니다. 키 큰 부도 하나가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암사지는 모두 8단계의 단지로 구성돼 있는데 천보산에 잇닿은 쪽이 8단지로 대장전, 방장, 정청, 방장, 나한전 등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던 곳입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가장 후미진 곳이지만 도량의 중심에서 본다면 가장 권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8단지의 오른쪽 후미 도량의 북쪽 모서리가 부도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단 한기의 부도가 탑비도 석등도 없이 홀로 서 있는데 키가 훤칠합니다.

여기에 함께 있었을 삼화상의 부도는 1821년(순조 21)에 지방의 토호인 이응준에 의해 파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당시 지역의 토호들은 숭유억불의 국시에 맞춰 불교를 이중삼중으로 핍박했는데, 실은 절터를 허물어 조상의 묘역을 삼고자 하는 욕심이 컸습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셔 후대의 안위를 튼튼하게 하자는 욕심이 앞서 신성한 도량을 파헤치는 업보의 무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술사(術士)의 말을 듣고 삼화상의 부도를 파괴한 이응준은 7년 후에 그 일이 알려져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깨진 부도와 탑은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경기지역의 스님들이 의논 끝에 도량에서 위쪽에 위치한 언덕에 다시 삼화상의 부도와 탑비를 조성해 모십니다. 그러나 비의 몸돌만은 끝내 복구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수난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우뚝하게 회암사의 흥망을 지켜 본 이 부도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회암사지부도탑'이란 이름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라는 입석 표식이 비에 젖은 채 탑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탑은 팔각원당형의 기본을 취하고 있지만 몸돌은 원형이로 다듬어져 있고 지붕돌의 경사가 급해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정성스럽게 놓아진 지대석과 기단석들이 주는 안정감이 위로 올라갈수록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탑의 부재들을 꿰어 맞춰 쌓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탑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간 공력을 들인 작품이 아닙니다. 여덟 쪽의 널돌을 지대석으로 받치고 네 개의 돌로 다음은 하대석을 얹었는데, 하대석부터 용과 천마의 정교한 문양이 주는 생동감은 매우 깊은 진동으로 눈을 사로잡습니다. 중대석과 상대석의 연과 당초문 등 조각도 매우 세심한 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의 목조각에서 흔히 그렇게 하듯 따로 조각을 해 정교하게 붙여 둔 것처럼 보일만큼 조각이 깊고 섬세합니다.

상대석에 이어지는 몸돌은 둥근 화강암인데 복련과 앙련의 받침위에 놓였습니다. 키가 맞지 않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런 글자나 문양의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몸돌 위를 덮은 지붕돌은 매우 폭이 좁고 지붕마루의 경사가 심해 머리통 큰 사람이 작은 모자를 쓴 것 같은 부조화를 보입니다. 거기서 탑의 균형미가 심하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회암사의 역사를 두고 본다면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 홀로 남아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것이 장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도의 주인으로는 허응당 보우 선사와 1472년 절을 중창한 처안(處安) 대사일 것이라는 추측은 있어도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길을 위로 향합니다. 회암사 오른쪽 능선의 삼화상 부도와 왼쪽 능선의 나옹선사 탑비를 향합니다. 비가 그친 뒤로 나뭇잎의 푸르름이 더욱 선명한데 주변의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되는지 총소리가 귀를 아프게 합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